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십시오.

모두가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보석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북어, 황태, 코다리, 동태. 이처럼 명태는 가공 방식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명태라는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만화 제시) 보신 것처럼 명태에 사는 어부 태 씨가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명태라니 흥미롭지요? 명태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평소 식탁에 자주 오르는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더 이상 잡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관심했던 명태에 대해 알려 드리고 싶어 명태가 사라져 가는 실태와 그 원인, 그리고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겠습니다.

명태는 동해에 풍부하게 서식해 (도표 1 제시) 보시는 것처럼 연간 수만 톤씩 잡혔지만 1990년대 들어 어획량이 줄어들더니 2000년부터는 급격히 감소해 최근에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표 2 제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명태는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태는 왜 우리 바다에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연구자들은 남획을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새끼 명태인 노가리까지 무차별적으로 잡아 명태의 씨가 말랐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구 온난화를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동해의 표층 온도 상승이 명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지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미리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지만 말씀드린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하나 찾아 보여 드릴게요. (동영상 재생) 보신 것처럼 명태는 차가운 바다의 표층에 알을 낳기 때문에 표층 온도가 오르고 있는 동해는 명태에게 불리한 바다 환경인 셈이지요.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진 명태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에 대해 연도별로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 간단히 설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준비한 사진과 내용은 많지만 몇 장의 사진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만을 설명하겠습니다. (세 장의 사진을 골라 한 화면에 제시) 첫 사진에 보이는 이 어미 명태로부터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례금을 걸 정도로 어렵게 명태를 확보한 연구진은 치어를 인공 부화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음 사진처럼 동해에 명태를 방류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적은 수지만 방류했던 명태가 잘 자라고 있음이 확인되어 우리 바다에 명태가 되살아날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는 2019년부터 우리 바다에서의 명태잡이를 금지해 명태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발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발표 후 제게 질문해 주시거나 제가 발표를 위해 참고한 ○○수산연구소 누리집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위 발표를 위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명태가 사라져 가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을 소개해야겠다.
- ② 명태가 다양하게 불리는 점을 언급하며 화제를 제시해야겠다.
- ③ 어미 명태를 확보하는 일이 어려웠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 ④ 명태를 되찾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해야겠다.
- ⑤ 명태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려는 목적을 밝혀야겠다.

2. <보기>를 바탕으로 위 발표가 진행되었다고 할 때, 학생의 발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발표 전 청중 특성 분석	발표 중 청중 반응 분석
㉠ 명태에 대해 흥미가 적음.	㉡ 동해의 표층 온도와 명태의 관련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을 모름.	㉣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기를 원하고 있음.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기 원함.	

- ① ㉠을 고려하여,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만화를 활용하고 있다.
- ② ㉢을 고려하여, 명태가 우리 바다에서 사라져 가는 실태를 알려 주기 위해 도표 1을 활용하고 있다.
- ③ ㉡을 고려하여, 수입산 명태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 하기 위해 도표 2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을 반영하여, 앞서 설명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 ⑤ ㉣을 반영하여, 발표 분량을 조정하기 위해 발표 전 준비한 사진 중 일부 사진을 선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 다음은 두 학생이 위 발표를 들으며 쓴 메모이다. 학생 1과 학생 2가 상대의 메모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1	학생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태 이름 유래: (명)태(태) 씨 ○ 명태의 새끼=노가리 ○ 음식점에서 명태의 원산지가 러시아라는 표기를 본 적이 있음. ○ ○○수산연구소 누리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획과 지구 온난화 ⇒ 명태가 동해에서 사라져 가고 있음. ⇒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명절에 먹었던 동태전이 명태로 만든 것이었군.

- ① 학생 1: 나처럼 발표 내용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했군.
- ② 학생 1: 나와 달리 발표 내용 간의 관계를 파악했군.
- ③ 학생 1: 나와 달리 발표 내용을 일상의 경험과 관련지었군.
- ④ 학생 2: 나처럼 발표 내용을 유사한 항목으로 범주화했군.
- ⑤ 학생 2: 나와 달리 발표 방식에 대해 평가했군.

[4~7] (가)는 ‘활동 1’에 따른 대화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후 활동

- [활동 1] 인상 깊은 인물을 선정하여 다양하게 이야기해 보기
- [활동 2] 인상 깊은 인물을 중심으로 서평 쓰기

(가)

민지: 「레 미제라블」을 읽어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만나게 되어 좋아. 여기에는 당시 프랑스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문제들, 그것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 ㉠ 너희들은 어떤 인물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재민: 음... 난 주인공 장 발장이 인상적이었어. 가난한 시골 일꾼에서 범죄자, 시장으로 삶의 변화가 심했고, 그만큼 내면의 성장이 드러난 인물인 것 같아서.

준수: 나도 장 발장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응원하며 읽게 되더라고 근데 난 미리엘 주교가 가장 기억에 남아. 장 발장은 은그릇을 훔친 것을 알면서도 경찰에게 자신이 준 선물이라고 말해서 그를 위기에서 구해 주잖아. 오히려 두고 간 물건이 있다고 말하면서 은촛대마저 내주는 장면이 감동적이었거든.

민지: 맞아. 준수도 주교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구나. 그는 장 발장이 새 삶을 찾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어. 죄를 벌하는 게 능사만은 아닌 것 같아.

준수: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 그럼, 우리 미리엘 주교를 인상 깊은 인물로 정하면 어떨까?

재민: 좋은 생각이야. 나도 주교가 장 발장에게 변화의 계기를 준 인물이라 흥미로웠거든. 작가인 빅토르 위고에 대해 좀 찾아봤는데 프랑스의 변혁기에 정치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 인도주의를 담아내는 작품을 많이 썼더라고. 장 발장을 용서한 주교의 모습은 이런 작가의 생각을 잘 보여 주는 것 같아.

준수: 와, 작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대단하다. ㉢ 근데 미리엘 주교의 행동을 다른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발장은 남의 물건을 훔쳤으니 주교는 그의 죄를 덮어 줄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야.

민지: 맞아. 법을 지켜야 한다는 면에서 보면, 미리엘 주교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네. 모두가 주교처럼 범죄자를 대한다면 법이 필요가 없어지고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말이야.

재민: 함께 이야기하니 주교의 행동과 작품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네. ㉣ 다음 독후 활동은 ‘인상 깊은 인물을 중심으로 서평 쓰기’가 맞지?

준수: 응.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서평을 쓰면 되겠다.

민지: 좋아. 근데, 난 자료를 더 찾아보고 글을 쓰고 싶은데...

㉤ 재민아, 아까 작가에 대해 알아본 책이나 자료를 빌려 줄 수 있을까?

재민: 응. 언제 필요한테?

민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주말에는 할머니 댁에 가야 해서, ㉠ 혹시 목요일까지 줄 수 있겠니?

재민: 그래. 아직 못 읽은 부분이 있어서 얼른 읽고 빌려 줄게.

민지: 고마워. 아까 보니까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잘 정리해 놓았더라.

재민: (머리를 긁적이며) 아니야. 정리를 잘하진 못했는데 ㉡ 좋게 봐 줘서 고마워.

(나)

‘레 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의 의미는 무엇일까?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배경이 된 당시 프랑스는 국가 재정이 바닥났고, 흉작과 물가 폭등으로 사람들의 삶은 힘겨웠다. 가난한 장 발장의 모습은 시대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장 발장은 은그릇을 훔친 것을 알고도 죄를 덮어 준 사람이 미리엘 주교이다.

주교의 행동은 장 발장을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들었다. 세상의 법은 19년 동안 장 발장의 자유를 박탈했지만 그는 교화되지 않았고 결국 주교의 사랑이 그를 바꾸어 놓았다. 한편 다른 관점에서 보면, 주교의 행동은 법의 집행을 어렵게 하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법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주교의 행동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법, 상식과 같이 일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판단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교의 행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애정이며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교적 용서이다. 조각들을 위해 빵을 훔친 후에, 전과자의 낙인이 찍힌 그를 사회는 차갑게 외면했다. 그를 따뜻하게 받아 준 사람이 주교였으며 그의 죄를 용서해 준 모습에는 사회적 약자와 인도주의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담겨 있다.

이 작품은 장 발장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항상 서로 많이 사랑해라. 이 세상에 그 밖에 다른 것은 별로 없느니라.”라고 딸에게 말한다. 이렇듯 그가 사랑의 힘을 믿게 된 것은 미리엘 주교가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는 서문에서 “지상에 무지와 빈곤이 존재하는 한, 이 책 같은 종류의 책들도 무익하지는 않으리라.”라고 말했다. 무지와 빈곤의 세상을 살아 갈 수 있게 하는 사랑의 힘. 「레 미제라블」이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력을 지니는 이유이다.

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활동 1’을 하기 위해 인상 깊은 인물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을 묻고 있다.
- ② ㉡: 인상 깊은 인물을 누구로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친구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 ③ ㉢: 인물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④ ㉣: 자신이 알고 있는 ‘활동 2’에 대한 정보를 친구들에게 확인하고 있다.
- ⑤ ㉤: 자신에게 필요한 책이나 자료를 빌려 줄 것을 친구에게 부탁하고 있다.

5. 다음을 참고하여 [A], [B]에 나타난 표현 전략과 대화의 원리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 전략	㉠ 준언어적 표현	㉡ 비언어적 표현
대화의 원리	㉢ 상대의 처지를 고려하면서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	
	㉣ 상대를 배려하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	
	㉤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낮추어 말하기	

	표현 전략	대화의 원리
① [A]	㉠	㉢
② [A]	㉡	㉣
③ [B]	㉠	㉣
④ [B]	㉡	㉣
⑤ [B]	㉡	㉤

6. 다음은 (가)에 참여한 학생들이 (나)에 대해 상호 평가한 내용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호 평가 활동지>

[잘한 점]

- 1문단: '활동1'에 언급된,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구체화하여 이를 장 발장의 상황과 연결시킨 점 ①
- 1문단: '활동1'에 언급되지 않았던, 작품 제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여 문답의 방식으로 제목의 의미를 제시한 점 ②
- 2문단: '활동1'에 언급된, 작가에 관한 내용을 활용하여 미리엘 주교의 행동이 지닌 한계를 제시한 점 ③
- 4문단: '활동1'에 언급되지 않았던, 작품 서문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품의 의미를 강조하며 마무리한 점 ④

[수정할 점]

- 3문단: 앞 문단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담화 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점 ⑤

7.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나)에 나타난 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비평하는 글을 쓸 때에는 관점을 수립하여 주장이 잘 드러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필자의 관점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 관점에 따라 주장을 명료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또한 선택되지 않은 관점의 단점이나 문제점을 근거로 활용하면 필자의 관점을 강화할 수 있다.

- ① 장 발장의 말을 인용하여 미리엘 주교로 인해 변화한 그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미리엘 주교의 행동에 대해 긍정하는 관점을 드러냈다.
- ② 사회적 약자를 애정으로 대한 미리엘 주교의 행동을 근거로 들어,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 ③ 미리엘 주교의 행동이 장 발장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근거로 들어, 미리엘 주교의 행동은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 ④ 조카들을 위해 빵을 훔친 장 발장의 행동을 근거로 들어, 미리엘 주교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 ⑤ 미리엘 주교의 행동에 대해 반대하는 관점의 단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법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음을 제시하여 필자의 관점을 강화하였다.

[8~10] 다음은 교지에 실을 조사 보고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걷기'의 가치에 대한 학생 인식 조사 보고서

I. 조사 동기 및 목적

최근 사회에서 일고 있는 걷기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달리, 우리 학교 학생들의 걷기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학생들이 걷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

II. 조사 계획

- 조사 대상: 우리 학교 학생 120명 및 일반 성인 75명
- 조사 기간 및 방법: 2020.5.10.~5.15., 설문지 조사
- 조사 내용: 걷기 실태 및 가치 인식

III. 조사 결과

1. 걷기 실태

'이동 수단으로서의 걷기를 제외하고 30분 이상 걷기를 주 몇 회 하는가?'를 설문한 결과, 학생은 주 1회 이상의 비율이 10.0%에 불과한 반면 ○○공원에서 만난 성인은 44.0%로 나타났다. 학생과 달리 성인은 대부분 걷기를 실천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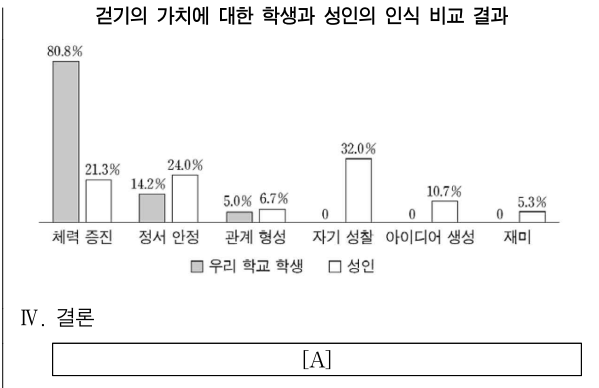
2. 걷기 가치 인식

가. 걷기의 가치 인식 여부

'걷기가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은 91.7%, 성인은 92.0%가 각각 '그렇다'라고 답했다.

나. 걷기의 가치 인식 비교

'걷기의 가치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응답은 학생이 '체력 증진(80.8%)'인 반면, 성인은 '자기 성찰(32.0%)'이었다. 이러한 성인의 응답은 걷기를 "발로 사색하는 것" (황△△, 『걷기 속 □□□』, ◇◇출판사, 2017, p.10.)이라고 보는 견해와 관련된다. 성인은 자기 성찰, 정서 안정, 체력 증진, 아이디어 생성 등 걷기의 가치를 다양하게 인식한 반면, 학생은 걷기의 가치를 다양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8. 다음은 윗글을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보고서를 쓸 때 먼저 ① 사회적 추세와는 다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조사 동기가 되었음을 언급해야겠어. 또 ② 조사 결과에 설문지의 질문 내용을 밝혀 제시하고 ③ 조사 대상별로 소재목을 달아 본문의 내용을 서술하자. 표면적 수치만 나열하기보다 ④ 학생과 성인의 설문 조사 결과들을 대비하여 조사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⑤ 일부 문항의 응답 결과를 비교하여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야지.

9. <보기>를 고려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친구의 조언: 결론에는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천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면 좋겠어.

- ① 학생들은 건기를 정기적으로 실천하는 비율이 높지 않다. 또한 성인에 비해 건기의 여러 가치 중 특정 가치만을 인식하고 있다.
- ② 학생들은 건기를 통해 성찰, 관계 형성, 정서 안정 등 건기의 다양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학생들이 건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를 바란다.
- ③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건기의 가치 중 체력 증진을 가장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학생들이 지금과 같은 건기의 실천을 통해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 ④ 학생들은 건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지만, 성인에 비해 건기를 실천하지 않고 그 가치를 다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건기를 수행하며 건기의 다양한 가치를 깨달았으면 한다.
- ⑤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건기의 가치를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다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건기의 가치를 폭넓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0. <보기>의 ㉠~㉢ 중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쓰기 윤리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선생님: 보고서를 쓸 때에는 다음과 같은 쓰기 윤리를 지켜야 해요. 자료를 직접 조사한 경우 ㉠ 조사 기간과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을 기술해야 합니다. 그리고 ㉡ 조사 결과를 과장, 축소, 왜곡하여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고, 그 내용과 자신의 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의 뒤에는 참고 문헌을 제시해야 하는데, ㉣ '참고 문헌'에는 보고서에서 인용한 모든 자료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보고서를 완성해 봅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11. <보기>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수영: 내일이 방송부 아나운서를 선발하는 날인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진수: 너무 걱정 마. 내가 대본에다가 발음에 주의해야 할 단어들의 표준 발음을 표시해 봤어. 확인해 봐.

[방송 대본]

어제는 책을 열심히 ㉠ 읽는[잉는] 친구에게 선물할 책을 사려고 ㉡ 서울역[서울력] 안에 있는 서점에 갔어요. ㉢ 복잡함[복짜판] 인파를 헤치고 서점 ㉣ 깊숙이[깊쑤기] 들어가서 친구에게 줄 시집을 드디어 찾아냈지요. 시집을 펼쳐 마음에 드는 시를 ㉤ 읊다가[읍따가]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친구는 제 선물을 받고 정말 기뻐했어요.

수영: 그런데 왜 이 발음이 표준 발음이지?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데……. 우리가 배운 음운 변동과 관련이 있는 거야?

진수: 맞아. 각 단어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을 모두 살펴보면,

[A]

수영: 그렇구나. 고마워.

- ① ㉠에서는 탈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잉는]으로 발음돼.
- ② ㉡에서는 한 번의 첨가가 일어나 [서울력]으로 발음돼.
- ③ ㉢에서는 축약과 교체가 한 번씩 일어나 [복짜판]으로 발음돼.
- ④ ㉣에서는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깊쑤기]로 발음돼.
- ⑤ ㉤에서는 한 번의 탈락과 두 번의 교체가 일어나 [읍따가]로 발음돼.

[12~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 이상의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합성어는 '어근들의 결합 방식'과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 둘 이상의 용언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 용언의 관형사형이 명사를 수식하는 것, 주어나 목적어 뒤에 서술어가 결합하는 것, ㉡ 명사나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 등은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이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어근들이 결합한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산나물', '바로잡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뽕죽구두', '눈푸르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에 따르면, 합성어는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로 나뉜다. 대등 합성어는 '눈푸르다'처럼 두 어근의 의미가 동등한 관계를 보이는 합성어이다. 종속 합성어는 '산나물'처럼 선행 어근이 후행 어근을 의미상 수식하는 합성어이다. 대등 합성어와 종속 합성어는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이들 합성어의 의미를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어근들의 의미만으로는 합성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 합성어를 구성하는 어근들 간의 의미 관계를 따지기 힘든 합성어를 융합 합성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는 '손을 내밀어 그 모양에 따라 순서나 승부를 정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융합 합성어이다.

그런데 여러 의미를 가지는 합성어는 그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합성어의 유형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찬밥'은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종속 합성어이고, '중요하지 아니한 하찮은 인물이나 사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융합 합성어이다.

이처럼 의미에 따라 합성어가 어떠한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 간의 의미 관계, 그중에서도 상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지은 지 오래되어 식은 밥'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찬밥'은 의미상 '밥'에 포함되므로 '밥'의 하의어이고, 이러한 의미 관계를 보이는 '찬밥'은 종속 합성어이다. 그러나 '찬밥'이 융합 합성어일 때에는 '찬밥'과 '밥'이 상하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눈밥'과 같은 대등 합성어도, 합성어와 그 합성어를 구성하는 후행 어근이 상하 관계를 맺지 않는다.

12. ㉠, ㉡에 해당하는 예끼리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① 먹고살다 | 새색시 |
| ② 뛰놀다 | 먹거리 |
| ③ 갈라서다 | 척척박사 |
| ④ 걸어오다 | 큰아버지 |
| ⑤ 빛나다 | 돌다리 |

1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 나는 그저께 막내딸을 보름 만에 만났다.
 ㉡ 바깥에 오래 있었더니 손발이 차가워졌다.
 ㉢ 며칠째 밤낮이 바뀐 날이 계속되고 있다.
 ㉣ 시간만 잡아먹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가을이 되자 철새들이 남쪽으로 날아갔다.

- ① ㉠의 '막내딸'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딸'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② ㉡의 '손발'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발'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 ③ ㉢의 '밤낮'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융합 합성어이겠군.
- ④ ㉣의 '잡아먹는'은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먹다'의 하의어가 아니므로 대등 합성어이겠군.
- ⑤ ㉤의 '날아갔다'는 그 의미를 어근들의 의미만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가다'의 하의어이므로 종속 합성어이겠군.

14. <학습 활동>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자료]에 나타나는 중세 국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① 나라 말쌈미 中囡國귀에 달아 文囡字囡외로 서르 스뭇디 아니홀씩 이런 전츠로 어런 百穰姓성이 니르고져 囡 ㉠ 배 이셔도 ㅁ츨내 제 ㉡ 쁘들 시러 퍼디 ㅁ홀 ㉢ 노미 하니라 내 ㉣ 이를 爲囡헝야 어엿비 너겨 새로 스물여덟 字囡를 밍그노니 사릅마다 囡여 수비 니겨 날로 ㅁ뻔 便囡安한키 ㅎ고져 囡 ㅅ라미니라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 현대어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활동 결과]

[A]

- ① ㉠을 보니, '시'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 기능을 하는군.
- ② ㉡을 보니, '이'가 현대 국어의 주격 조사 기능을 하는군.
- ③ ㉢을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서로 다른 두 개의 초성 글자가 나란히 쓰였군.
- ④ ㉣을 보니, '놈'이 현대 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였군.
- ⑤ ㉤을 보니, 현대 국어와 달리 양성 모음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군.

15.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정 부사를 사용하는 짧은 부정문과 보조 용언을 사용하는 긴 부정문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못’ 부정문은 능력 부정을 나타낸다는 것도 기억 하죠? 그런데 ‘안’ 부정문은 의지 부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주체의 의지와 무관하게 긍정문을 단순히 부정하는 단순 부정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제시된 조건에 맞게 부정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해 보겠어요.

조건		부정문
짧은 부정문, 능력 부정	→	동생은 발을 다쳐 등산을 못 갔다.
긴 부정문, 단순 부정	→	㉠

- ① 올해는 장마철에도 비가 많이 안 왔다.
- ② 환기를 하기 위해 창문을 닫지 않았다.
- ③ 심한 어지럼증으로 몸을 잘 가누지 못했다.
- ④ 나무가 많아 여기는 낮에도 벌이 잘 들지 않는다.
- ⑤ 충치 때문에 탄산음료는 당분간 못 마시게 되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정신과 물질을 동시에 지닌 유일한 존재로 여겨진다. 정신은 과연 물질, 곧 육체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 컴퓨터와 같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는 정신을 가질 수 없는가? 오래전부터 정신을 비물리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육체는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학적 조성을 띠지만 정신은 비물리적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이원론이다. 이에 견취 동일론은 정신은 육체, 그중에서 두뇌의 물리적 상태와 동일한 것으로 존재하지, 육체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무엇인가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보며 “여기도 없군. 저기도 없네.” 하며 철저히 점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동일론은 이원론을 반박한다.

원자나 엑스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것을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현상들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이원론자는 정신도 ㉡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가정해야만 설명할 수 있는 특성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프니츠는 만일 X와 Y가 동일하다면 이들이 똑같은 특성을 갖는다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물리적 대상도 갖지 못할 특성을 정신이 갖는다면, 이 원리에 따라 정신은 물리적 대상과는 다를 것이다.

대표적 이원론자인 데카르트는 그런 특성으로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제시한다. 그는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가 사람처럼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해낼 수는 없으리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 힘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약하다. 먼저 컴퓨터 언어라는 개념은 이제 상식적인 것이 되었다. 컴퓨터 언어는 인간이 쓰는 언어에 비해서 구조와 내용의 면에서 단순하지만 그 차이라 하는 것은 종류의 차이가 아니라 정도의 차이이다. 한편 데카르트의 [A] 기술이 나타난 이래로 수세기 동안 여러 학자들은 수학적 추론의 일반적 원리들을 이력저력 찾아낼 수 있게 되었고, 컴퓨터 기술자들은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데카르트를 깜짝 놀라게 했을 법한 ㉢ 기계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하지 않고서도 언어와 수학적 추론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와 같이 더 복잡한 것을 끌어들이지 않고 무언가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독립적인 정신을 가정할 필요가 없다.

데카르트는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로 이원론을 지지하는 또 다른 논증으로, 육체의 존재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지만 정신은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든다. 의심하기 위해서는 내 정신이 ㉣ 또렷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육체와 정신 중 하나는 의심 가능하다는 특성을 갖지만 다른 하나는 갖지 않으므로 그 둘은 ㉤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논증을 평가하기 위해 사실은 같은 사람인 정약용과 다산을 생각해 보자. 『목민심서』를 정약용이 썼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더라도 다산이 썼다는 것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 다산이 썼어도 쓰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약용과 다산이 ㉥ 동일한 존재가 아닌 것은 아니다.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는,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특성이 의심이나 생각 같은 것을 포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16.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에서 발생한 일이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의심은 할 수 있다.
- ② 이원론은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에도 정신이 독립적으로 있다고 본다.
- ③ 원자나 엑스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리적 대상이 아니다.
- ④ 라이프니츠는 물리적 대상이 정신과 똑같은 특성을 갖더라도 그 둘은 다르다고 보았다.
- ⑤ 데카르트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수학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기계가 출현하리라고 예상했다.

17. ㉠에 대한 동일론자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도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②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③ 기술이 발달하면 컴퓨터는 인간과 종류가 다른 정신을 가질 것이다.
- ④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는 인간과 달리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 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컴퓨터도 인간과 같이 정신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18.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악령의 존재를 가질할 필요 없이 병원체의 존재를 가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나) ‘하늘에 태양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왼손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른손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① (가)에서는 단순성의 원리에 의해 악령을 끌어들이 필요 없는 것이겠군.
- ② (가)에서 ‘악령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악령이 존재할 모든 가능성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겠군.
- ③ (가)에서 병원체의 존재가 감염병을 가장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병원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겠군.
- ④ (나)에서 왼손과 오른손은 동일자 식별 불가능성 원리에 따라 동일한 대상이 아니겠군.
- ⑤ (나)에서 생각의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 까닭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 때문이겠군.

19. [A]에 드러난 동일론의 주장에 대해 이원론이 비판한다고 할 때,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그 뜻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인간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사용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행동적인 측면만 따라할 뿐이고 사랑이나 두려움 같은 감성적 측면은 따라할 수 없다.
- ③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계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수학적 추론을 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 ④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 작동하는 것에 불과하지 선택에 따른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수학적 추론을 하는 기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비행 시뮬레이션이 실제 비행의 모방에 불과한 것처럼 기계의 수학적 추론은 인간의 수학적 추론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20.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원자나 엑스선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고
- ② ㉡: 완전히 물리적인 체계를
- ③ ㉢: 화학적인 조성을 띠어야
- ④ ㉣: 똑같은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 ⑤ ㉤: 독립적인 존재인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박영채와 혼인하고자 했던 이형식은 영채가 죽은 줄로만 알고 김 장로의 청을 수락하여 김선형과 약혼한다. 그런데 선형과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우선과 함께 올라탄 기차에서 형식은 영채를 만나고 충격을 받는다.

“나는 미국 가기를 중지할라네.”
 “응?”
 하고 우선도 놀라며,
 “어째?”
 “㉠ 미국 가기를 중지할 테여…… 그것이 옳은 일이지…… 응, 그리할라네.”
 하면서 우선의 손을 놓고 차실로 들어가려 한다. 우선은 손을 잡아 형식을 끌어당기며,
 “자네 미쳤단 말인가. 이리 좀 오게.”
 형식은 떨거니 섰다.
 “㉡ 자네 지금 정신이 산란하였네. 미국 가기를 중지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여.”
 “아니! 저편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려고 하는데 나는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선형 씨한테 이 뜻을 말하고 약혼을 파하겠네. 그것이 옳은 일이지.”
 “그러면 영채하고 혼인한단 말이지?”
 “㉢ 응, 그렇지. 그것이 옳지.”
 “영채는 자네와 혼인을 한다던가.”
 “그런 말은 없어.”
 “만일 영채가 자네와 혼인하기를 싫다 하면 어쩔 텐가.”
 형식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생 혼인 말고 지내지…… 절에 가서 중이 되든지.”
 우선은 마침내 껄껄 웃으며,
 “지금 자네가 좀 노보세[上氣]했네*. 참 자네는 어린아일세. 세상이 무엇인지를 모르네그러. 행여 꿈에라도 그런 생각 내지 말고 어서 미국이나 가게.”
 “㉣ 그러면 저 사람을 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지. 일이 이미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무엇 하나. 또 영채 씨도 동경에 유학도 하게 되었고, 하니까 ㉤ 피차에 공부나 잘하고 장래에 서로 남매 삼아 지내게그러. 그런 어림없는 미친 소리는 다 집어치고…….”
 하면서 형식의 등을 툭 친다.
 팔에 붉은 형걸 두른 차장이 지나가다가 두 사람을 슬쩍 본다. 형식은 자리에 돌아와 뒤에 몸을 기대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선형은 조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듯이 기대어 앉았다. 형식의 가슴속에는 새로운 의문 하나가 일어난다.

[A] 대체 자기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선형인가, 영채인가. 영채를 대하면 영채를 사랑하는 것 같고, 선형을 대하면 선형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까 남대문에서 차를 탈 때까지는 자기는 오직 선형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듯하더니, 지금 또 영채를 보매, 선형은 둘째가 되고 영채가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듯도 하다. 그러다가 또 앞에 앉은 선형을 보매 '이야말로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내'라는 생각도 난다.

자기는 선형과 영채를 둘 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하면 동시에 두 사람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하는 말을 듣거나, 자기가 지금껏 생각하여 온 바로 보진대, 참된 사랑은 결코 동시에 두 사람 이상에 향할 수 없는 것이어늘, 지금 자기의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있다.

(중략)

[B] 그는 사랑이란 것을 인류의 모든 정신 작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것의 하나인 줄을 믿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선형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에게 대하여서는 극히 뜻이 깊고 거룩한 일이요, 자기의 동포에게 대하여서는 큰 정신적 혁명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형식의 사랑에 대한 태도는 종교적으로 진실하고 경건한 것이었다. 사랑을 인생의 전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랑에 대한 태도로 죽어 인생에 대한 태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이제 생각하여 보진대 자기의 선형에게 대한 사랑은 너무 유치한 것이었다. 너무 근거가 박약하고 내용이 빈약한 것이었다.

형식은 오늘 저녁에 이것을 깨달았다. 깨달으매 슬펐다. 마치 자기가 인생 경력을 다 들여서 하여 오던 사업이 일조에 헛된 것인 줄을 깨달은 듯한 실망을 맛보았다. 그와 함께 자기의 정신의 발달한 정도가 아직도 극히 유치함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 인생을 깨달을 때도 아니요, 따라서 사랑을 의논할 때도 아님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자기가 오늘날까지 여러 학생에게 문명을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친 것이 극히 외람된 일인 줄도 깨달았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이다. 마침 어른 없는 사회에 처하였으므로 스스로 어린인 체하던 것인 줄을 깨달으매 스스로 부끄러운 생각도 난다.

형식은 생각에 이어 생각을 한다.

나는 조선의 나날 길을 분명히 알았거니 하였다. 조선 사람의 품을 이상과, 따라서 교육자의 가질 이상을 확실히 잡았거니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필경은 어린애의 생각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 이광수, 「무정」 -

* 노보세했네: 일본어를 차용한 표현으로 '홍분했네'의 뜻임.

2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자기 주도적 사랑의 가치는 [B]의 자기희생적 사랑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
- ② [A]에서는 사랑의 대상을 고민하고 있고, [B]에서는 사랑의 근거를 반성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사랑에 대한 이성적 접근이, [B]에서는 사랑에 대한 감성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④ [A]에서는 사랑의 현재적 상황에, [B]에서는 사랑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⑤ [A]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달리, [B]에서는 사랑의 가치에 대해 확신을 표현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채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미국행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영채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 선형과의 혼인 약속을 깨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영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선형과의 약혼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약혼을 파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영채를 버리고 미국행을 선택하는 것과 선형과 혼인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영채는 동경으로, 형식은 미국으로 유학 가서, 미래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낫겠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2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연애'라는 말은 20세기 초 조선에서 영어 'LOVE'의 번역어로 처음 등장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을 전체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되었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나아가 「무정」에서는 '형식'이 연애와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진실을 발견한다. 사랑의 갈등을 겪는 가운데 스스로를 민족 계몽의 선각자로 자부했던 '형식'은 자신의 내면에서 결핍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① 사랑의 대상을 혼인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고민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의 문제를 고민하는 개인을 형상화한 결과이겠군.
- ②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자문하는 형식의 모습은, 감정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통하여 근대적 관념으로서의 연애를 서사화한 결과이겠군.
- ③ 사랑을 개인의 일로만 국한하지 않고 민족에 대한 정신적 혁명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형식의 모습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서의 연애가 계몽성을 지녔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인생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헛된 것임을 깨닫고 실망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의 실천에서 겪는 어려움이 근대적 자아의 자각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사랑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자신의 깨달음을 성찰하는 형식의 모습은, 연애를 고민하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내면의 결핍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 버린다
차디찬 밤이다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밤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이렇게 해서 어린 가슴이 짝기도* 전이다
어데서 줍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개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피한다
- 백석, 「수라(修羅)」 -

- * 어니젠가: 어느 사이엔가.
- * 짝기도: 삭기도. 긴장이나 화가 풀려 마음이 가라앉기도.
- * 가제: 갓. 방금.
- * 수라: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 고통이 지속되는 세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나)

이런 돼지가 살았다지요 반들거리는 검은 털에 날렵한 주둥이를 가진, 유난히 흙의 온기를 좋아하여 흙이랑 노는 일을 제일로 즐겨워했다는군요 기른다는 것이 실은 서로 길드는 것이어서 이 지방 사람들은 ㉠ 통시라는 거처를 마련했다지요 인간의 배변 장소와 돼지우리가 함께 있는 아주 재미난 방인 셈인데요 지붕을 덮지 않은 널찍한 호를 파고 지푸라기 조금 깔아준 방 안에서 이 짐승은 눈비 맞고 흙과 똥과 똥굴면서 비바람 햇볕을 고스란히 살 속에 아로새기게 되었다는데요 음식물 찌꺼기며 설거지물까지 버릴 것 없이 모아둔 큰 독 속에서 ㉡ 한때 빛나던 것들이 제 힘으로 다시 빛날 때 발효한 이 먹이를 돼지가 먹고 돼지의 배설물은 보리밭 거름으로 이쁜 보리들을 길렀다는데요 그래도 이 짐승의 주식이 사람의 똥이었던 것은 생명은 생명에게 공양되는 법이라 행여 남아 있을 ㉢ 산 것들의 온기가 더럽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될까 두려운 때문이 아니었는지 몰라

나라의 높은 분이 보기에 미개하여 시멘트 네 포대씩 무상 지급한 때가 있었다는데요 문명국의 지표인 변소를 개량하라

다그쳤다는데요 흔적이거나 통시가 아직 남아 내 몸 속의 방을 향해 손 내밀어주는 것은, ㉣ 똥누고 먹는 일이 한가지로 행해지는 그곳을 신이 거주하는 장소라 여긴 ㉤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김선우, 「신(神)의 방」 -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공감각적 표현을 통해 계절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비판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와 소재 사이의 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주제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독백적 어조를, (나)에서는 대화적 어조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나)에서는 화자의 행위를 통해 대상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5. 공간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바닥’은 ‘나’가 거미 새끼를 감지함으로써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깨닫는 공간이다.
- ② ‘쓸려 나간 곳’은 큰 거미의 출현으로 인해 ‘나’가 심적 고통을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 ③ ‘새끼 있는 데’는 큰 거미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지점으로서 ‘나’의 상실감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④ ‘큰 거미 없어진 곳’은 거미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행위로 인해 거미들의 고통이 해소되는 공간이다.
- ⑤ ‘문 밖’은 ‘방바닥’에 대비됨으로써 ‘나’가 거미들의 만남이 실현된다고 확신하는 공간이다.

26. (나)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거처를 마련했다’라는 표현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② ㉡의 ‘제 힘으로’라는 표현에서, 쓸모를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에도 생명력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 ③ ㉢의 ‘두려운 때문’이라는 표현에서, 가장 더러운 것을 무섭게 여기는 인식이 허위임이 드러난다.
- ④ ㉣의 ‘한가지로 행해지는’이라는 표현에서, 배설하고 먹는 행위는 생명을 순환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의 ‘하늘 가까운 섬사람들’이라는 표현에서, 통시에 대한 섬사람들의 인식이 신의 섭리에 부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서정시의 하위 양식인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현실 세계를 재현하려는 의도에서 출현했다. 전자는 화자와 세계의 관계 차원에서, 후자는 시적 진술의 방법 차원에서 서정시의 외연을 확장한다. 사건이나 사연 등의 이야기를 시적 구조의 기반으로 삼는 이야기시는 화자와 세계의 갈등을 담은 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와의 합일을 지향하는 서정시 일반의 특성에서 다소 벗어난다. 행을 구별하지 않고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는 산문시는 지시하거나 설명하는 언어를 구사함으로써,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한다. 하지만 이야기시와 산문시는 여전히 합축성과 음악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서사나 산문과 구별된다.

- ① (가)와 (나)에서는 모두 중심 소재를 청각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반복됨으로써 서정시의 음악성이 실현되고 있음.
- ② (가)와 (나)에서는 모두 화자가 인식하는 현실 세계가 비유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응축됨으로써 서정시의 합축성이 실현되고 있음.
- ③ (가)는 화자와 거미가 처한 상황을, (나)는 특정 지역 생활 양식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재현하고자 하는군.
- ④ (가)는 행위의 연쇄를 담은 이야기를 시적 구조로 취하므로 이야기시에 해당하고, (나)는 줄글의 형태로 시적 진술을 전개하므로 산문시에 해당하군.
- ⑤ (가)는 화자와 거미가 합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일반적인 특성을 벗어나고, (나)는 통시를 둘러싼 풍습에 대한 설명이 진술된다는 점에서 서정시의 압축성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군.

[28~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춘추 전국 시대의 논쟁 주제 중 하나였던 음악은 진나라 때 저작인 ㉠『여씨춘추』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졌다. 이 저작에서는 음악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표출되어 형성된 것이자 백성 교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즐거움을 주는 욕구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지배층의 사치스러운 음악 향유를 거론하며 음악을 아예 거부하는 목자에 대해 이는 인간의 자연적 욕구를 거스르는 것이라 비판하고, 좋은 음악이란 신분, 연령 등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전까지는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겼지만, 『여씨춘추』에서는 음악을 듣는 주체의 수준과 감성에 따라 동일한 음악이라도 상이한 느낌과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감정을 가진 것처럼 음악에도 감정이 담겨 있다고 전제하고, 음악을 통해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표현하면

결과적으로 장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을 통해 감정의 표현이 적절해지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해지며, 생명 연장까지도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여씨춘추』에 따르면, 천지를 채운 기(氣)가 음악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데, 음악의 조화로운 소리가 자연의 기와 공명하여 천지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인체 내에서도 기의 원활한 순환을 돕는다. 음악은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어 음양의 작용에 따라 자연에서 생겨나지만, 조화로운 소리는 적절함을 위해 인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좋은 음악은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가 적절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음악에 대한 『여씨춘추』의 입장은 인간의 선천적 욕구의 추구를 인정하면서도 음악을 통한 지나친 욕구의 추구는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은 『여씨춘추』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귀생(貴生)’의 원칙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적인 욕구에 따라 음악을 즐기면서도 그것이 생명에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것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고 취사선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여씨춘추』에서는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일차적인 자연적 음악보다 인간의 감정과 욕구를 절도 있게 표현한 선왕(先王)들의 음악을 더 중시하였다. 그리고 선왕들의 음악이 민심을 교화하는 도덕적 기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나)

음악적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9세기 미학자 한슬리크는 “㉡ 음악의 아름다움은 외부의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음과 음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모차르트의 ‘교향곡 제40번 사단조’는 ‘사’ 음을 으뜸음으로 하는 단음계로 작곡된 조성 음악으로, 여기에는 제목이나 가사 등 음악 외적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7개의 음을 사용하여 음계를 구성하고, 으뜸, 딸림, 버금딸림 등 각각의 기능에 따라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한다. 조성 음악의 체계는 17세기 이후 지속된 서양 음악의 구조적 기본틀이었다.

그러나 20세기 초 서양 음악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을 거부하고 새로운 미적 가치를 추구하였다. 불협화음이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조성 음악으로부터의 탈피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음악들 중의 하나가 표현주의 음악이다. 표현주의는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예술 사조로서 미술에서 시작하여 음악과 문학 등 예술의 제 분야에 영향력을 미쳤다. 표현주의 예술은 소외된 인간 내면의 주관적인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하려는 사조이다. 표현주의 음악의 주된 특성은 조성 음악의 체계가 상실된 것이며, 이는 곧 ‘무조 음악’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당시 쇤베르크가 발표한 음악 프로그램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처음으로 나는 지난 시기 미학의 모든 울타리를 부숴버렸으며, 사명을 띠고 **한 이념**을 부르짖는다.”

무조 음악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다양한 불협화음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는 쇤베르크가 1912년에 발표한 작품 ‘㉢ 달에 홀린 피에로’이다. 이 작품은 상징주의 시인인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에 수록된 50편의 시 중에서 21편을 가사로 삼아 작곡한 성악곡이다.

Rezitation



이 곡의 성악 성부는 새로운 성악 기법으로 주목을 받았다. 즉 악보에 음표를 표기하기는 하였으나, 모든 음표에 X표를 하여 연주할 때에는 음높이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말하는 선율'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피에로로 분장한 낭송자가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풍자를 담은 가사를 읊는다. 또한 기악 성부는 다양한 악기 배합과 주법을 통해 새로운 음향을 창출한다. 이 곡은 무조적 짜임새를 기본으로 하여, 낭송조의 표현적 측면을 강조한 새로운 성악 기법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색채적 음향 등을 통해 표현주의 음악의 특징을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28. 다음은 (가), (나)를 읽고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의 일부이다.

㉠~㉢에 대한 평가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공통점	○ 음악에 대한 견해를 설명하기 위해 그 견해와 대비되는 견해를 제시함. ㉠ : :
차이점	○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음악 작품을 예로 제시함. ㉡ ○ (나)와 달리 (가)는 음악을 다른 예술 갈래와 비교함. ㉢ : :

- | | | | |
|---|-----|-----|-----|
| | ㉠ | ㉡ | ㉢ |
| ① | 적절 | 적절 | 적절 |
| ② | 적절 | 적절 | 부적절 |
| ③ | 적절 | 부적절 | 적절 |
| ④ | 부적절 | 적절 | 적절 |
| ⑤ | 부적절 | 부적절 | 부적절 |

29. ㉠에 제시된 음악에 대한 견해와 부합하는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무 큰 소리와 너무 작은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은 적절하지 않은 음악이 된다.
- ② 훌륭한 음악은 군주와 신하, 아버지와 자식,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 ③ 사람이 음악을 즐기는 것은 선천적인 욕구에 따른 것이니 음악은 사람이 억지로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④ 음악에 감정이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감정이 있는 것과 같으니 음악을 듣고 감정을 적절히 해소하면 마음이 쾌적해진다.
- ⑤ 쾌활한 사람이든지 우울한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슬픈 곡조의 음악을 들으면 누구나 슬픈 감정의 상태에 이르는 법이다.

30. (가)를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노자(老子)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실현하는 데 욕구가 방해가 된다고 보고, 현실 속 음악을 거부하였다. 그에게 최고의 음악은 우주의 근원인 도(道)의 모습을 닮아 거의 들리지 않는 음악이었다.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이상적으로 본 장자(莊子)는 노자와 같이 음악을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전제하면서 음악을 친지 만물의 조화와 결부하여 설명하였다. 음악이 인간의 삶에서 결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그는 의미 있는 음악이란 사람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근본을 두면서도 형식화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선왕(先王)들이 백성들을 위해 제대로 된 음악을 만들었다고 보았다.

- ① 노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인위적인 음악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
- ② 노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우주 자연의 근원에서 음악이 비롯되었다는 데 긍정적이었던 것.
- ③ 장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선왕들의 음악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것.
- ④ 장자는 『여씨춘추』와 달리 음악에 대한 목자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것.
- ⑤ 장자는 『여씨춘추』와 같이 만물의 조화를 중심으로 음악을 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것.

31. <한 이념>의 실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성에서 벗어난 무조적 짜임새로 표현하는 것
- ② 음계를 구성하는 7개의 음을 사용한 화음들로 표현하는 것
- ③ 사회 비판과 풍자를 가사에 담아 정확한 음높이로 표현하는 것
- ④ 불협화음을 사용할 경우에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하여 표현하는 것
- ⑤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거부하고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하는 것

32. ㉡의 관점에서 ㉢을 비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X표로 표시된 말하는 성악 선율은 주관적인 감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② 피에로 분장을 한 낭송자가 가사를 낭송하는 것은 음악 외적인 것이 개입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다양한 악기의 배합과 새로운 연주 기법을 시도한 것은 색채적 음향으로 무조적 경향을 깨뜨리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④ 규칙적인 화성 진행을 따르는 것은 12개의 음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성 음악의 체계에서 벗어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지로가 발표한 연시집 중 일부만을 가사로 사용한 것은 전체 작품의 즐거움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일일은 박씨가 계화를 불러 왓, “대감께 여쭙 말미 있으니 아뢰거라.”

하니, 계화 명을 받아 공께 아뢰니, 공이 즉시 ㉠ 내당에 들어가 물기를, “무슨 말인지 듣고자 하노라.”

박씨 아뢰기를, “명일 종로에 각처 사람들이 말을 팔려고 모였을 것이니, 노복에게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모양이 볼 것 없는 말을 삼백 냥을 주고 사 오게 하소서.”

공이 들음에 허황하나 자부가 범인과 다름을 알고 즉시 허락 하며 근실한 노복들에게 분부 왓, “명일 종로에 가면 말 장사들이 있을 것이니, 그중에서 비루하고 파리한 말 하나를 삼백 냥을 주고 사 오라.”

하며 돈을 주니,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나와 서로 이르되, “대감께서 무슨 연고로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삼백 냥이나 주고 사 오라 하시느고?”

하고 서로 의혹해 하며, 이튿날 삼백 냥을 가지고 ㉡ 종로에 나가본즉 과연 여러 말이 있더라.

그중에 비루하고 파리한 말을 골라 입자를 찾아 값을 물으니 입자가 말하기를, “그 말 값은 닷 냥이오. 좋은 말이 많거늘 어찌 지런 용렬한 것을 사려 하시오?”

노복이 대왓, “우리 대감의 분부가 그러하오.”

하니 장사 왓, “그러면 닷 냥만 내고 가져가시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우리 대감께서 삼백 냥을 내고 사

[A] 오라 하시니 삼백 냥을 받고 주시오.”

한데, 장사 왓, “본값이 닷 냥인데 어찌 비싼 값을 받으리오?”

하니 노복이 말하되, “대감 분부대로 주는 것이니 여러 말 말고 받으시오.”

하며 주거늘 장사가 사양하고 받지 않거늘 노복이 마지 못해 억지로 백 냥을 주고 이백 냥은 감추고 돌아오더라.

노복이 대감에게 말을 사 왔다 아뢰니, 공은 즉시 자부를 부르니, 박씨 노복에게 말을 가져오라 하며 말을 한참 보다가 말하기를, “말 값이 삼백 냥을 주어야 쓸 데 있거늘 무지한 노복이 말 장사에게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도로 주거라 하옵소서.”

공이 이 말을 듣고 박씨의 신명함을 탄복하고 즉시 ㉢ 외당에 나와 노복들을 불러 꾸짖기를, “너희들이 말 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백 냥만 주고 왔으니 상전을 기망한 죄는 나중에 중치 하려니와 감춘 돈은 말 주인에게 주고 오라. 만일 지체하면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하니 노복들이 사죄 왓, “이같이 명백하시니 어찌 기망하오리까? 과연 대감 분부대로 말 장사에게 삼백 냥을 준즉 말 값이 닷 냥이라 하고 받지 아니하옵기로 억지로 백 냥만 주고 이백 냥은 감추었으니, 이렇듯 신령하옵시면 소인들의 죄는 만사무척이로소이다.”

하고 즉시 ㉣ 종로에 나가 말 장사를 찾아 돈 이백 냥을 주며 왓, “이 사람아, 주는 돈을 고집하고 받지 아니하더니 우리 등이

상전에게 죄를 당하게 되는 어찌 통분치 아니리오?”

하며 이백 냥을 억지로 맡기고 돌아오더라.

박씨 말을 기른 지 삼년에 준총(駿驄)이 되어 걸음은 비호(飛虎) 같은지라. 박씨가 공께 왓, “모월 모일에 명나라 사신이 올 것이니, 그 말을 가져다 ㉤ 사신 오는 길에 놓으면 사신이 사려 할 것이며, 값은 삼만 냥이라 하고 팔아 오라 하소서.”

공이 듣고 자부 말대로 노복을 불러 분부한 후 사신 오기를 기다리더라.

과연 그날 사신 나오니, 사신이 말을 보고 파는가 묻거늘 노복 왓, “파는 말입니다.”

[B] 사신이 또 물기를, “값을 얼마나 받으려 하느냐?”

노복이 답 왓, “값은 삼만 냥이로소이다.”

사신이 대희하여 삼만 냥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가더라. 노복들이 받아 가지고 돌아와 공께 말 팔던 사연을 낱낱이

아뢰고, 공은 삼만 금을 얻음에 가산이 부요하니 박씨에게 물어 왓, “삼만 냥을 받았으나 아지 못게다. 어떤 연고인고?”

박씨 아뢰기를, “그 말은 곧 천리 준총마로 조선은 작고 조만간 쓸 곳이 없으나, 사신은 준마를 알아보고 삼만 금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 갈 것이니 그런 고로 사신에게 팔았나이다.”

공이 듣고 왓, “너는 여자이나 명견만리하니 진실로 아깝도다. 만일 남자였던들 보국 충신이 될 것을 여자임이 한이로다.”

하며 탄식하더라. 박씨 무릎을 꿇고 왓, “소부의 원하는 바는 가군이 과거에 급제하여 부모에게 영화를 뵈옵고 입신양명하여 나라를 충성으로 돕고, 소부는 다만 유자유손하고 만수무강 하오면 죽어도 무한이로소이다.”

하거늘 공이 그 말을 들음에 못내 탄복하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 -

(나)

그녀는 늘 우하형에게 비변사 서리를 통하여 조보(朝報)*를 구입해 오게 하여 보는데, 대개 열흘 만에 도착했다. 그녀는 조보를 통해서 조정 일을 헤아리고 전관(銓官)*이 누가 될 것 인가를 미리 알아맞히는데 귀신같이 열에 하나도 틀림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하형으로 하여금 다음 전관이 될 사람에게 미리 손을 써 평안도 물화를 끌어모아 정성으로 바치니, 그 효험이 십분 나타나게 되었다. … (중략) … 봉급이 점차 불어서 위로 섬김도 더욱 풍부하여 앞길에 날로 양양해졌다. 그리고 순차로 승진하여 마침내 절도사에 이르렀다.

우하형은 나이 칠십이 되어 집에서 삶을 마쳤다. 그녀는 자식들을 위로하며, “영감께서는 시골 무관으로 지위가 절도사에 이르렀고 고희 가까이 사셨으니, 당신이 보아도 유감이 없을 것이요, 자식들은 과히 예통할 것이 없소. 나의 일을 두고 말하더라도 여자가 지아비를 섬김에 자기 공치사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벼슬길을 도와서 높은 지위에 이르시도록 했으니, 내 소임 역시 다한 셈이라 또 무엇을 슬퍼하겠소.”

하고 겨우 장례 기간이 지나자 그녀는, “영감이 살아 계실 때에는 내가 집안을 맡았지만 영감이 돌아가신 뒤에는 큰며느리가 마땅히 이 집의 주인이 되어야 하오. 나는 한 서모(庶母)에 불과하니 가정을 큰며느리에게 맡기겠소.”

하고는 창고에 저장하고 농 속에 담아둔 재물을 기록하여 열쇠와 함께 내주었다.

큰머리가 울며 사양하기를, “서모님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공로가 많으셨는지요. 아버님이 이제 별세하셨으니 저희는 아버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모님을 의지하겠어요. 집안일 모두를 예전 같이 하고 싶은데, 서모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그러나 그녀는 큰머리에게 기어이 집안을 맡겼다.
- 작자 미상, 「조보」 -

- * 조보: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여 반포하던 관보.
- * 전관: 문무관을 선발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

33.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계화는 박씨의 말을 듣고 자신이 짐작한 바를 공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② 공은 말을 사라는 박씨의 말을 듣고 한탄하다가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③ 노복은 말을 사 오라는 공의 명을 받고 의심 없이 행동하고 있다.
- ④ 박씨는 노복이 사 온 말을 관찰하면서 자기 안목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노복들은 자신들이 돈을 감춘 죄가 드러나자 그 책임을 장사에게 전가하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박씨가 공에게 요청한 바가 ㉡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이 ㉢에서 확인된다.
- ② 박씨가 ㉠에서 공에게 받았던 신뢰는 ㉣에서 타당성이 확인된다.
- ③ ㉡에서 노복들이 공에게 보인 신뢰는 ㉢에서 행해진 공의 꾸밈음을 거치면서 동요된다.
- ④ 노복은 ㉢에서 한 거래로 인해 ㉣에서의 행위를 해야만 했다.
- ⑤ 박씨가 ㉢에서의 사건을 문제 삼은 이유는 ㉣에서의 사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다.

3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입자와 [B]의 공은 모두 관련된 말의 진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 ② [A]의 노복과 [B]의 사신은 모두 말을 사려는 사유를 밝히고 있다.
- ③ [A]의 노복은 [B]의 사신과 달리 사려는 말의 진가를 알고 있다.
- ④ [B]의 사신은 [A]의 노복과 달리 상대의 의도에 대해 의혹을 품고 있다.
- ⑤ [A]에서는 입자가 받으려는 값대로, [B]에서는 사신이 지불하려는 값대로 말 값을 정했다.

36. (나)의 ‘그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보를 읽고 전관이 될 사람을 짐작했다는 점에서는, 정보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공적 정보인 조보를 사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조보의 공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굶어모은 물화로 청탁을 하여 남편을 절도사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는,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장례 중에는 자식들을 위로하고 장례 후에는 집안을 챙겼다는 점에서는, 서모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남편의 사후 집안일 모두를 남편이 살아 있을 때와 달리하러 했다는 점에서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다고 볼 수 있겠군.

37.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한글 고소설 「박씨전」이 신이한 능력을 지닌 여성을 허구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소망에 부응했다면, 한문 야담 「조보」는 현실적이면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던 실제의 여성을 제시함으로써 식자층 남성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씨」는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결국 전통적인 부인의 삶에 만족하고, 「그녀」도 탁월한 해안을 지녔지만 서모로서의 삶에 만족한다. 두 작품은 잠재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여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었던 여성상을 탈피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했다. 그러나 「박씨전」은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 「조보」는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사회적 제한에 치중했다. 두 작품은 서로 주목하는 바를 달리하여 새로운 여성상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고소설과 야담의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공’이나 ‘노복’이 짐작하지 못하는 지략을 발휘한 ‘박씨’의 모습에서, 고소설의 여성 독자가 소망하였던 여성상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에서 ‘그녀’가 ‘우하형’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 능력을 가정의 용성으로만 발휘하였던 실제 여성의 모습이 구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가)에서 ‘박씨’의 말을 ‘공’이 따르고, (나)에서는 ‘그녀’의 말을 ‘우하형’이 따르는 데에서, 남성에게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여성상이 추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의 ‘박씨’는 신이한 능력을, (나)의 ‘그녀’는 남다른 수완을 지녔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의 사회적 제한에 대해 여성 독자가 남성 독자보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보국 충신이 될 만한 ‘박씨’가 유자유손을 원한다고 말하고, (나)에서 집안에 공로가 많았던 ‘그녀’가 ‘큰머리’에게 가정을 맡기는 데에서, 전통적 부인의 삶과 서모의 삶이 형상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전 시가의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창되던 작품이 후대로 전승되다가, 창작 당시와는 다른 상황에 놓이면서 변모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개’를 소재로 한 아래의 시조들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하기야키’라고 불리는 도자기 가운데 한 점이 소장되어 있다(사진). ‘하기야키’는 진주 지방에서 도자기 비법을 이어 오다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 형제와 그 후손들이 일본 하기 지방에서 만든 도자기이다. [사진]의 도자기에는 한글로 (가)와 같은 시조가 써여 있다.



[사진] 추철희시문다완(萩鐵繪詩文茶碗)

(가)

개야 쓰치 말라 밤 사름 다 도드거
 두목지 호고려 님 지슌 덩겨스라
 그 개도 호고려 개로다 듯고 줌즘허느라

그런데 18세기의 가집인 『고금명작가』에 이와 유사하면서도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 (나)가 수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나)

개야 좃지 마라 밤 슝람이 다 도적가
 두목지* 호결이 님 쉼심 단니노라*
 그 개도 호결의 집 갠지 듯고 줌즘허더라

* 두목지: 기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
 * 쉼심 단니노라: 좃으러 다니노라.

(가)와 (나)는, 일부 시어의 표기가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구절과 표현이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작품으로 간주된다. (나)가 우리나라에 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기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조선에서 오래전부터 전승되어 오던 (나)를 고국에서 익힌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도자기를 구울 때 (가)를 기록해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화자를 여성으로 간주할 경우, 두목지 같은 남성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의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병양란 이후에 개를 소재로 한 작품은 기존 평시조의 틀을 벗고 다른 양식의 갈래인 사설시조로 다시 창작되었다. 사설시조(다)는 수많은 가집에 수록될 정도로 인기 있던 작품인데, 여기에서는 중심 소재가 개이고 화자가 여성인 점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를 담아내는 양식은 달라졌다.

(다)

개를 여남은이나 기르되 요 개같이 알미우라
 미운 입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치뽀락 내리뽀락 반겨서
 내닫고 고운 입 오면은 뒷발을 버둥버둥 무르락 나으락 캉캉
 깃어서 돌아가게 한다
 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있으라

1907년 한일신협약이 체결된 이후, 개를 소재로 한 (다)는 그 조약의 조인에 찬성한 이완용 등의 정미칠적(丁未七賊)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쓰였다. 작품이 창작된 시점을 고려할 때 (라)의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는 정미칠적을 비유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목 ‘살구(殺狗)’는 ‘개를 죽이다.’라는 뜻이다.

(라)

개를 여러 마리나 기르되 요 일곱 마리같이 알뎁고 좃미우라
 낮선 타처 사람 보게 되면 꼬리를 회회 치며 반겨라고 내달아
 요리 납작 조리 가웃하되 낮익은 집안사람 보면은 두 발을
 뻗디디고 콧살을 찡그리고 이빨을 엉성거리고 쾅쾅 짓는 일곱
 마리 요 박살할 개야
 보아라 근일에 새로 개 규칙 반포되어 개 임자의 성명을 개
 목에 채우지 아니하면 박살을 당한다 하니 자연(自然) 박살
 - 작자 미상, 「살구」 -

이상과 같은 변모의 사례들에서는 앞선 작품의 형식과 내용이 그대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표기·표현·주제·양식 등에서 다양한 변모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모는 이본, 작품, 갈래의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본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표기나 표현 가운데 일부가 바뀌기는 하지만, 주제·양식 등은 대체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작품 차원의 변모는 앞선 작품의 양식은 그대로 따르지만, 표현·주제 등이 바뀌어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갈래 차원의 변모는 새로운 작품이 앞선 작품과 다른 양식에 근거하여서 후속 작품을 새로운 갈래로 보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38.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좃지 마라’라고 한 것은 ‘밤 슝람’이 개가 짓는 소리에 발걸음을 되돌릴까 염려했기 때문이겠군.
- ② 초장의 ‘도적’과 중장의 ‘두목지 호결’은 모두 화자가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키는군.
- ③ 중장의 ‘두목지 호결’은 ‘두목지 같은 호결’로 풀이되어 ‘호결’에 대한 화자의 호감을 드러내는군.
- ④ 중장의 ‘줍즘허더라’는 ‘호결’이 ‘님 쉼심’하기에 용이한 상황이 되었음을 암시하는군.
- ⑤ 중장은 초장에서 화자가 개에게 ‘좃지 마라’라고 부탁한 이유를, 중장은 그 결과를 드러내는군.

39. (가)~(라) 사이에 이루어진 변모의 양상을 ㉠~㉢에 따라 적절하게 구별한 것은?

- | | | | |
|---|---------|---------|---------|
| | ㉠ | ㉡ | ㉢ |
| ① | (가)→(나) | (나)→(다) | (다)→(라) |
| ② | (가)→(나) | (다)→(라) | (나)→(다) |
| ③ | (나)→(가) | (나)→(다) | (다)→(라) |
| ④ | (나)→(가) | (다)→(라) | (나)→(다) |
| ⑤ | (다)→(라) | (나)→(다) | (가)→(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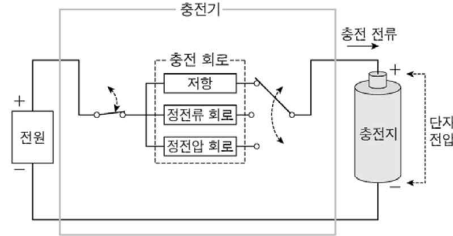
40. (가), (다), (라)의 향유 양상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가 일본으로 끌려간 도공들이 기록한 것이라면, 한글 표기를 통해 그들이 고국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② (가)가 일본에서 태어난 도공들의 후손이 기록한 것이라면, 그들이 조선인임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다)가 만나지 못하는 ‘고운 입’에 대한 원망(怨望)을 표현한 것이라면, 개는 ‘고운 입’ 탓에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는 셈이겠군.
- ④ (라)가 한일신협약을 비판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면, ‘개 규칙’은 한일신협약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 ⑤ (라)가 정미칠적에 대한 비판의 의도로 지어진 것이라면, ‘타처 사람’과 ‘집안사람’은 일본과 조선을 대조하는 표현이겠군.

[41~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충전과 방전을 ㉠ 통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지는 충전기를 ㉡ 통해 충전하는데, 충전기는 적절한 전류와 전압을 제어하기 위한 충전 회로를 가지고 있다. 충전지는 양극에 사용되는 금속 산화 물질에 따라 납 충전지, 니켈 충전지, 리튬 충전지로 나눌 수 있다. 충전지가 방전될 때 양극 단자와 음극 단자 간에 전위차, 즉 전압이 발생하는데, 방전이 진행되면서 전압이 감소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단자 전압의 평균을 공칭 전압이라 한다. 충전지를 크게 만들면 충전 용량과 방전 전류 세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전극의 물질을 바꾸지 않는 한 공칭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납 충전지의 공칭 전압은 2V, 니켈 충전지는 1.2V, 리튬 충전지는 3.6V이다.

충전지는 최대 용량까지 충전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이러한 상태를 만충전이라 한다. 최대 용량을 넘어서 충전하는 과충전이나 방전 하한 전압 이하까지 방전시키는 과방전으로 인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충전 양을 측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과충전 시에는 발열로 인해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이 있다. 니켈 충전지의 일종인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다른 충전지와 달리 메모리 효과가 있어서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는 것을 반복하면 충·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든다.



충전에 사용하는 충전기의 전원 전압은 충전지의 공칭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사용하고 충전지로 유입되는 전류를 저항으로 제한한다. 그러나 충전이 이루어지면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이 상승하여 유입되는 전류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막기 위해 충전기에는 충전 전류의 세기가 일정하도록 하는 정전류 회로가 사용된다. 또한 정전압 회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회로에 입력되는 전압이 변해도 출력되는 전압이 일정하도록 해 준다. 리튬 충전지를 충전할 경우, 정전류 회로를 사용하여 충전하다가 만충전 전압에 이르면 정전압 회로로 전환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충전지에 공급하는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충전지 내부에 리튬 이온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게 한다.

충전지의 ㉢ 만충전 상태를 추정하여 충전을 중단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다. 최대 충전 시간 방식에서는, 충전이 시작된 후 완전 방전에서 만충전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이 경과하면 무조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전류 적산 방식에서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충전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여, 각각의 값에 측정 시간 간격을 곱한 것을 모두 더한 값이 충전지의 충전 용량에 이르면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서는 충전지의 단자 전압과 충전지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만충전 여부를 판정한다. 충전지에 충전 전류가 유입되면 충전이 시작되어 단자 전압과 온도가 서서히 올라간다. 충전량이 만충전 용량의 약 80%에 이르면 발열량이 많아져 단자 전압과 온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만충전 상태에 가까워지면 단자 전압이 다소 감소하는데 일정 수준으로 감소한 시점을 만충전에 도달했다고 추정하여 충전 전원을 차단한다. 니켈카드뮴 충전지의 경우는 단자 전압의 강하를 검출할 수 있으나 다른 충전지들의 경우는 이러한 전압 강하가 검출이 가능할 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최대 단자 전압, 최대 온도, 온도 상승률 등의 기준을 정하고 측정된 값이 그 기준들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 과충전을 방지한다.

4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과충전은 충전지의 수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② 방전 시 충전지의 단자 전압은 공칭 전압보다 낮을 수 있다.
- ③ 정전압 회로에서는 입력되는 전압이 변하면 출력되는 전압이 변한다.
- ④ 전극의 물질을 바꾸어도 충전지의 평균적인 단자 전압은 변하지 않는다.
- ⑤ 니켈카드뮴 충전지는 일부만 방전한 후 충전하기를 반복해도 방전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지 않는다.

42. 다음은 리튬 충전지의 사용 설명서 중 일부이다. 밑줄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유의 사항

- 충전지에 표시된 전압보다 전원 전압이 높은 충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①
- 충전지에 표시된 충전 허용 전류보다 충전 전류의 세기가 강하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②
- 충전지의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충전을 중지해야 합니다. ③
- 충전지를 사용하다가 수시로 충전해도 무방합니다. ④
- 과도하게 방전시키면 충전지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⑤

43. <보기>는 밑글을 읽은 발명 동아리 학생들이 새로운 충전기 개발을 위해 진행한 회의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부장: 충전기에 적용할 수 있는 충전 중단 방식이 지닌 장점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제 각 방식을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부원 1: 최대 충전 시간 방식을 사용할 경우, 완전 방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전을 시작하면 과충전 상태에 이르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원 2: 전류 저산 방식을 사용할 경우, 충전 전류가 변할 때보다 충전 전류가 일정할 경우에, 추정된 충전 양과 실제 충전 양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장: 충전 상태 검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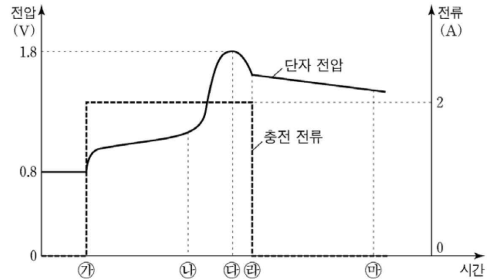
부원 3: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전압 강하를 검출하는 방식은 여러 종류의 충전지를 두루 충전하는 충전기에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부원 4: 충전 상태 검출 방식 중 온도로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에서는 주변 환경이 충전지 표면 온도에 영향을 준다면 충전 완료 시점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원 5: 지금까지 논의한 방식은 모두 충전 전원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면 과충전을 방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 ① 부원 1의 의견 ② 부원 2의 의견
- ③ 부원 3의 의견 ④ 부원 4의 의견
- ⑤ 부원 5의 의견

44. 다음은 어떤 충전지를 충전할 때의 단자 전압과 충전 전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밑글을 참고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단자 전압이 공칭 전압 이하인 상태에서 충전이 시작되는군.
- ② ㉡: 충전 전류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고 정전류 회로가 작동하고 있군.
- ③ ㉢: 단자 전압이 최대에 도달했으므로 만충전에 이르렀군.
- ④ ㉣: 정전류 회로가 작동을 멈추고 전원이 차단되었군.
- ⑤ ㉣: 충전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방전이 되고 있군.

45. ㉠,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그 사람에게 그런 식은 안 통한다.
㉡: 전깃줄에 전류가 통한다.
- ② ㉠: 그와 나는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
㉡: 청년기를 통해 노력의 중요성을 익혔다.
- ③ ㉠: 이 길은 바다로 가는 길과 통해 있다.
㉡: 모두 비상구를 통해 안전하게 빠져나갔다.
- ④ ㉠: 이곳은 바람이 잘 통해 빨래가 잘 마른다.
㉡: 그런 알팍한 수는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
- ⑤ ㉠: 철저한 실습을 통해 이론을 확실히 익힌다.
㉡: 망원경을 통해 저 멀리까지 내다보았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